

7 광주일보
제17478호 2006년 6월 20일 화요일

자신의 무릎 등에 상처 낸 뒤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타내

광주 북부경찰, 보험설계사 등 4명 검거

광주 북부경찰은 19일 보험설계사와 짜고 보험에 가입한 뒤
둔기로 자신의 무릎 등에 상처를 낸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
험금을 타낸 혐의(자해공갈)로 L화재 보험설계사 김모(43·광
주시 북구 오치동)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.

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4년 11월 21일 밤 7시10
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5·18 기념공원 인근 지하 주차장에
서 둔기로 구모(43·광주시 서구 유촌동)씨의 무릎을 때려 상
처를 낸 뒤, 공원 건물목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해 보
험회사로부터 2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두 차례에 걸
쳐 3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.

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향 선·후배와 동창 관계로, 대출금
등으로 생긴 약 3천만원씩의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
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. 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적게는 2
곳, 많게는 18곳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.

/이승배기자 lsb54@kwangju.co.kr

“치~” 무시발언 했다고...

교사가 학생 폭행 '과문'

여고 3학년 교사가 “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”며 여
학생을 폭행, 과문이 일고 있다.

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40분께 광
양 모 여고에서 이 학교 3학년 교사 A씨가 교육방송 시청수업
에 늦은 자각생들을 교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.

“아직 수업이 시작되지 않았다”는 학생들의 반발 속에 시작
종이 울리자 교실 안에 있던 B(18)양이 “치~”라는 말을 흘렸
고, 이 말을 들은 A교사는 B양을 불러 뺨과 목을 5차례 때렸
다. B양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2일간 입원한 뒤 현
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.

학생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
학부모들에게 알렸으며, 학부모들은 교장실로 찾아와 항의했
다. 학부모들은 “A교사가 평소 학생들에게 ‘성적 수치심을 유
발하는 발언을 했다’는 말을 들었다”며 이에 대한 해명도 요구
했다.

학교 측은 학생들의 폭행사건에 반발해 A교사의 수업을 거
부하자 담임을 교체했으며, ‘학교분쟁조정위’를 열어 해당 교
사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.

A교사는 20일까지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.
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“폭행은 사실로 확인이 됐지만 성
적 수치심에 대한 부분 등은 좀 더 조사를 한 후 징계 절차를
باط을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한편 B양의 부모는 A교사를 경찰에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
알려졌다.

/최재호기자 lion@kwangju.co.kr

참여하고 즐기는 ‘시민축제’로 승화

구호·응원가·응원도구 다양해져 축구지식·시민의식도 업그레이드

월드컵 4강 신화의 숨은 주역이었던 거리응원이 ‘진화’를 거듭하고 있
다. 지난 2002년 붉은 티에 막대풍선
만 달랑 들었던 ‘12번째 전사’들은 이
제 ‘도깨비 뿔’을 머리에 단 채 응원나
팔을 붙여댄다.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
고 꼭짓점 댄스를 추기도 하며, ‘생판
모르느’ 사람의 어깨를 움켜 잡고 ‘인
간 기차놀이’도 한다.

◇피동에서 능동, 획일에서 다양=
무엇보다 거리응원의 대중적 기반이
부쩍 넓어졌다. 거리응원은 2002년 월
드컵 당시 ‘붉은 악마’와 네티즌을 중
심으로 시작했다. 이번엔 처음부터 시
민과 학생이 적극 참여하면서 인산인
해(人山人海)를 이뤘다.

여성들은 옷을 찢고, 자르고, 붙이
고, 접었다. 남성들도 태극기 문양의
두건을 뒤집어쓰고, 민소매 셔츠를 입
어 ‘근육미’를 과시했다. 어린이들은
‘삼순이 양머리’에 야광 ‘도깨비 뿔’을
조화시켜 한껏 멋을 냈다.

◇단순에서 복잡=2002년 당시 거
리응원은 ‘대~한민국’구호와 ‘오~
필승 코리아’ 응원가 등 단조로운 패
턴이었다. 이번엔 ‘Reds Go Together’
(붉은 악마) ‘애국가 록 버전’(윤도현)
‘동방의 투혼(동방산기)’ 등 10여 종
에 달했다.

응원도구 역시 박수와 막대풍선이

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나팔에 공기
를 불어넣어 큰 소리를 내는 ‘훈’
(horn), 똑똑처럼 터지는 ‘휴지 꽃가
루판’, 17가지 색상을 내는 ‘매직봉’ 등
이 다채롭게 등장했다.

◇전문가 ‘뺨치는’ 축구지식=이제
거리응원에서는 더 이상 아나운서의
해설이 필요 없다. 응원단은 우리 대
표팀은 물론 상대팀 선수의 등번호만
봐도 누군지, 포지션은 어딘지 ‘쾌차
고’ 있다.

과거 욕설과 함께 섞여 나왔던 단순
한 비난은 찾아볼 수 없다. 일부 ‘고수’
팬은 캐스터를 자처하며 포털사이트
실시간 문자중계에서 해설을 하기도
했다.

◇높아진 시민의식=광주월드컵경
기장에서 한국-프랑스전 경기를 관람
한 시민들은 경기가 끝나자 일렬로 줄
지어 차분하게 빠져나갔다. 2만 명이
넘는 응원단이 모였지만, 30분도 채 걸
리지 않아 대부분 경기장을 빠져나갈
수 있었다.

맥주병과 컵라면 등의 쓰레기를 미
리 준비한 봉투에 담아가는 시민도 많
았다. 전남대 후문에서 열린 응원전예
서는 참가자 1만여 명 중 절반이 남아
쓰레기를 함께 치웠다.

지난 2002년 광주에서는 시민이 질
서 유지에 나선 의결을 폭행하거나
‘승리의 경적’ 때문에 시비가 붙어 폭
력을 휘두른 대학생 등이 10여 명 입
건됐다. 올해는 성추행이나 소매치기
등 범죄와 특별한 ‘난동꾼’이 없었다.

/임주형기자 jhlim@kwangju.co.kr



전남대 후문 앞에서 열린 한국과 프랑스 전 거리응원에 참가한 시민과 학생들이 19일 새벽 경기가 끝난 뒤 쓰레기를 한 데 모으며 치우고 있다. /최현배기자 choi@kwangju.co.kr

만취 선박운항... 화물선 ‘광’

2천t급 ‘컨선’으로 10만t급 추돌

여수 해경, 50대 선장 구속 영장

여수해양경찰은 19일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다
추돌 사고를 낸 혐의(해상교통안전법 위반)로 제주 선
적 2천400t급 컨테이너 운반선 ‘골덴보야지’(Golden
boyage)호 선장 손모(50·부산시 부산진구)씨에 대해
구속영장을 신청했다.

해경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40분께 혈
중알콜 농도 0.27%의 만취상태로 여수시 오동도 북동

방 4.2마일 해상을 운항하던 중 부산 선적 9만5천t급 화
물선 ‘시드니’(Sidney)호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충돌사
고로 낸 혐의다. 이 사고로 두 선박의 선체 일부가 손
상됐으나, 인명 피해나 해양오염은 없었다.

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사고 발생 40분 전에 선내 식
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만취상태에서 배를 운항한
것으로 드러났다.

현행 ‘해상교통안전법’은 혈중알콜농도 농도 0.08% 이
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선박 문수에 따라 최
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
도록 규정하고 있다. 혈중알콜 농도 0.16% 이상으로
선박을 운항하다 인적·물적 피해와 해양오염 사고를



일일킬 경우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.
한편, 전남지역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하다 해경에 적
발된 건수는 지난해 23건이었으며, 올 들어 (5월 말 현
재) 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.

/여수=강성훈기자 kangsw@kwangju.co.kr



연예2차동원회
대주 피오레
1,300여 부지 중 353부 353부지
문의 (062)366-4220

다산초당서 '보정산방' 현판 출서
○강진경찰은 19
일 추사 김정희(秋史
金正喜, 1786~1856)
글씨의 모각(模刻)품으로 알려진 강진
다산초당(茶山草堂)의 보정산방(寶正山
房·사적 107호)(사진) 현판을 출진 정
모(35·목포시)를 절도혐의로 입건.



○정씨는 지난 18일 밤 9시께 강진
군 도암면 만덕리 굴동마을 다산 정약용
(茶山 丁若鏞, 1762~1836)의 초당 현판
1개를 훔쳐 달아나다 유적지 관리사무
소 직원에게 발각.
○'보정산방' 현판은 화재로 소실됐
던 다산초당의 동암(東菴)이 1975년 복
원되면서 추사 김정희의 서책인 '보정산
방'의 글씨를 확대·모각해 새긴 것으로,
다산보다 24세 연하인 추사가 다산의 학
문적 역량을 흠모해 쓴 것이라고.
/강진=이병철기자 mood@kwangju.co.kr

용봉동 M타워 분양 및 임대

대형
주거인형에서 분양가
40%까지 낮아진다

분양	100㎡ 이상	100㎡ 이하
임대	100㎡ 이상	100㎡ 이하

신우 환기유니트
Airpass

신우공토속 중심사업

신우 환기유니트
Airpass

신우공토속 중심사업